On Track for Asia and Beyond

On Track for Asia and Beyond

KORAIL KOREA RAILROAD CORPORATION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TEL 1544-7788 FAX 042-472-3024 www.korail.com

해외사무소 파리 33-1-4562-0142, 0114 도쿄 81-50-7535-0228 베이징 86-10-6479-5561

KORAIL 한국철도공사

Contents

Our Journey

01 Welcome to KORAIL
08 CEO 인사말
10 미션 & 비전

Our Future

14 글로벌 리더
16 지속가능한 성장
18 고품격 서비스

Our Businesses

22 지역간 여객사업
24 광역철도사업
25 물류사업
26 부대사업
27 계열사

Our Strengths

28 경영혁신
30 환경경영
31 사회공헌
32 인재개발 & 기술개발
33 국제활동
34 만나세요 코레일
40 연혁

Welcome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21세기로 향하는 한국철도공사의 플랫폼에서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세상, 21세기 녹색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며,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철도 르네상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환경, 복지가 어우러진 풍요로운 미래로 향하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 한국철도의 대장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00 km/h

KTX 운행 속도

생활을 바꾼 속도

한국철도는 지금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에 개통된 KTX는 세계 다섯 번째의 고속철도로, 개통한 지 3년 만에 이용객 1억 명을 돌파하며 최고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빠른 속도와 높은 안정성으로 국민의 생활지도를 바꾼 KTX와 함께 대한민국은 점점 더 편리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10년의 동행, 110년의 믿음

한국철도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발전사입니다. 1899년 노량진과 제물포를 잇는 경인선이 개통된 지 7년 만에 부산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첫 한반도종단철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철도는 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를 통해 국가 기간운송망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110년의 역사를 일군 성실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철도공사는 이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철도 르네상스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와 무디스의 국제 신인도

A, A2

6,000억원

철도 수송분담률이 1% 증가할 때 연간 에너지 비용 및 CO_2 배출비용 절감액

21세기 녹색성장 시대,
철도 르네상스의 글로벌 리더

21세기 비즈니스의 가장 큰 화두는 친환경입니다.
국내의 철도 수송분담률이 1%만 상승해도 연간 6,000억 원의
에너지 비용 및 CO_2 배출비용이 절감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세계 다섯 번째 고속철도의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류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비즈니스 무대에서도 철도 르네상스의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1등 국민철도' 입니다

한결같이 달려온 110년이었습니다.

1899년 최초로 경인선 철도가 개통된 이래, 한국철도는 대한민국 곳곳으로 변화의 에너지를 실어 나르며 근대화와 산업화의 든든한 대동맥 역할을 해왔습니다.
2004년 KTX 개통과 함께 한 단계 도약한 한국철도는 전국을 한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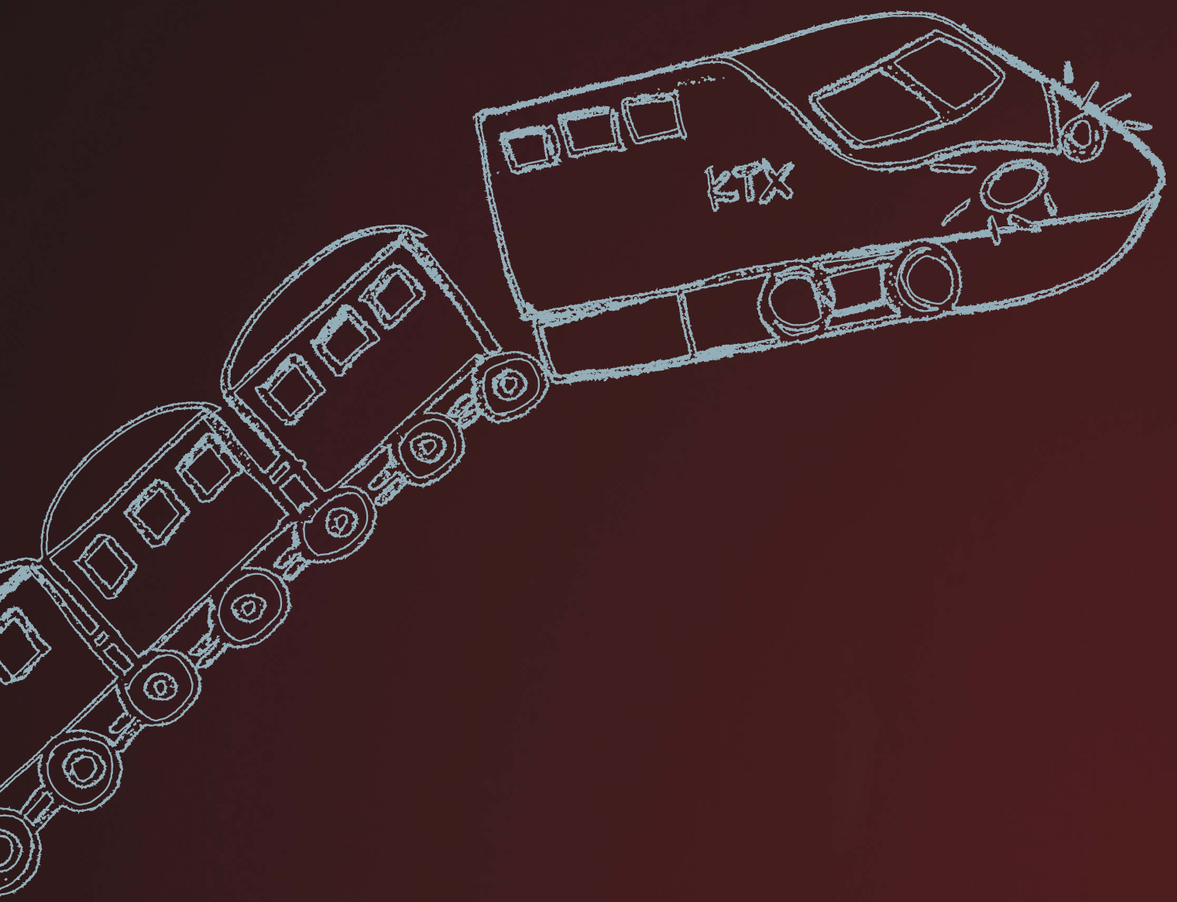
그리고 지금, 한국철도는 획기적인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철도가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때,
우리는 이러한 추세를 철도 르네상스 시대로 가기 위한 확고한 전환점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한국철도의 르네상스를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바로 '세계 1등 국민철도' 입니다.
밖으로는 세계 다섯 번째 고속철도의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안으로는 최상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철도를 가장 친근한 교통수단으로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한국철도의 깃발이 휘날리고 국내여행을 갈 때는 제일 먼저 철도를 떠올리는 것!
우리가 꿈꾸는 '세계 1등 국민철도' 의 모습입니다. 철도선진화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도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의 철도가 따라오는 한국철도,
세계의 기준을 다시 쓰는 한국철도가 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사장
허준영



고객과 함께 글로벌 종합운송그룹으로 커 가겠습니다

기업의 미션과 비전은 기업의 갈 길을 안내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2005년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새롭게 출범한 한국철도공사는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기업의 좌표가 될 미션과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미션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Green Network'는 철도 서비스를 주축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연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이며 다짐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Great KORAIL'의 비전을 설정하여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고속철도 수혜지역의 확대와 부대사업 활성화로 자립경영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지향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으로 고객에게 보다 나은 삶의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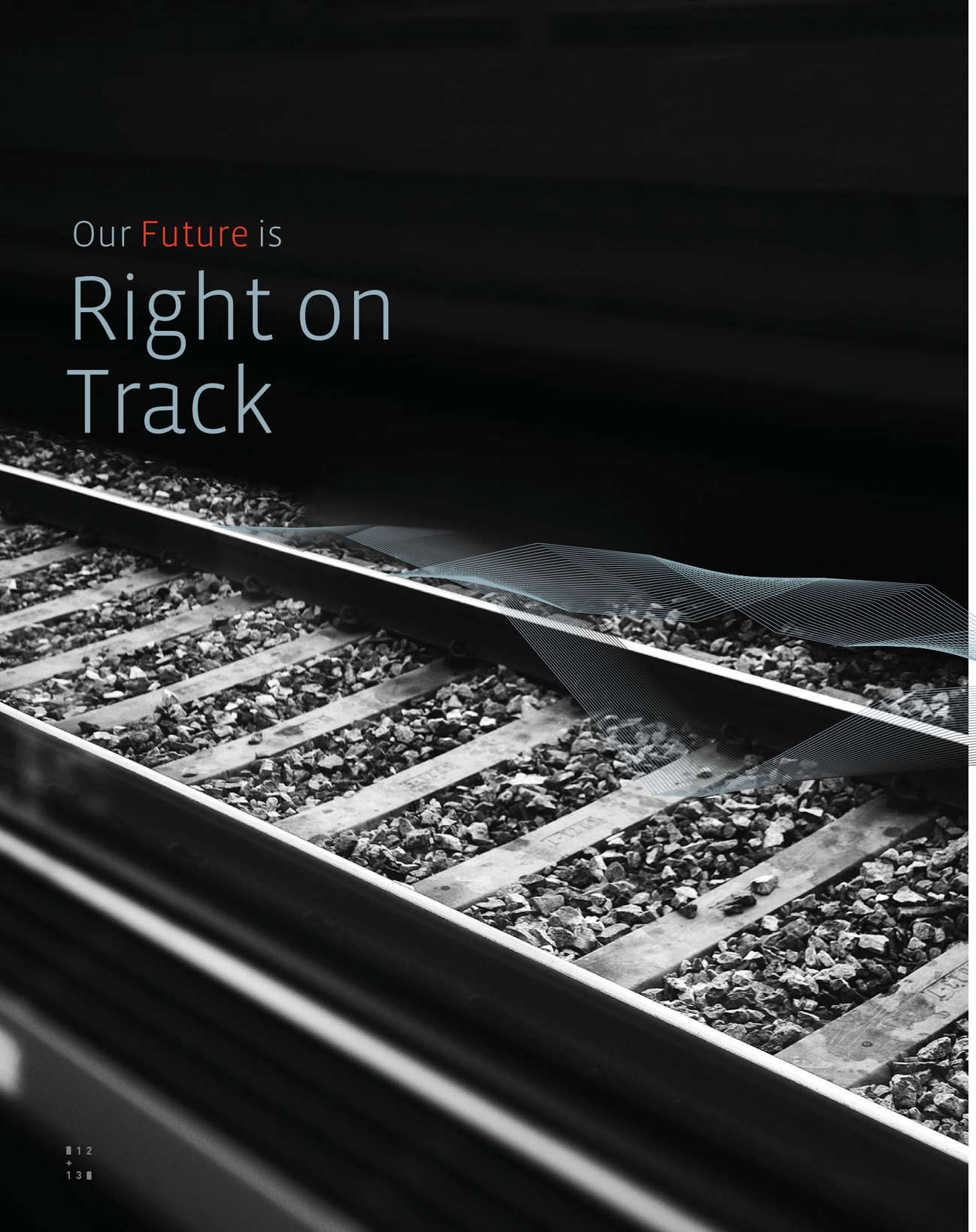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Green Network

한국철도공사는 지속가능한 철도운송 서비스와 다양한 연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내고, 국민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비전

시간과 공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Great KORAIL

지속적으로 속도서비스를 혁신하고 생활문화 공간을 확장함으로써, 고객의 성공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세계 1등 국민철도'가 되겠습니다.



Our Future is

Right on Track

우리의 미래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에게 미래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글로벌 리더, 지속가능한 성장,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서비스를 통해 날마다 조금씩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는 지금 이곳의 이야기입니다.

현재진행형의 미래, 한국철도공사와 함께라면 더 먼저 누릴 수 있습니다.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비즈니스는 친환경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철도는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며,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철도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 국가들은 110년 전통의 철도 운영 노하우와 세계 다섯 번째의 고속철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과 철도시스템 인프라 구축 운영 노하우는 한국철도공사가 전 세계 철도역사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건설 및 운영 노하우에 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철도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타당성 조사, 사업관리, 운영 · 유지보수, 교육,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자문 등 다양한 철도 관련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한국형 고속열차 KTX-II가 시험운행을 위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날, 그 위용에 감격스러워하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KTX-II의 탄생은 고속열차 기술국 반열에 한국철도의 이름을 당당히 새기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KTX-II가 전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꿈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기쁨 사원
한국철도공사 홍보실

해외사업
한국철도공사는 110년 철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시스템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미 말레이시아 EMU 기술협력 및 컨설팅 사업, 리비아 복선철도 건설에 따른 철도직원 위탁교육 등을 통해 해외사업의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해외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 사업관리(PM), 운영 · 유지보수, 교육,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자문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KTX-II(한국형 고속열차)
KTX-II는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신형 고속열차입니다. KTX-II의 완성으로 우리나라는 일본, 프랑스,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열차를 독자적으로 제작, 운영할 수 있는 고속열차 기술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안전성, 편의성, 정숙성, 유연성, 신뢰성으로 탄생한 KTX-II는 2009년 하반기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대륙철도
한반도와 대륙을 잇는 대륙철도의 꿈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TKR(한반도종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을 통해 한반도와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와 중국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가 현실로 완성되면 기차를 타고 중국, 러시아, 유럽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합니다

철도는 현재의 운송수단인 동시에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운송수단입니다. 많은 교통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철도가 떠오르는 것이 그러한 연유입니다. 철도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입니다. 예를 들어 KTX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2시간 40분으로, 공항까지 오가는 시간과 대기시간을 고려한다면 비행기보다 더 저렴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KTX의 개통으로 경부선과 호남선의 철도 여객수송능력이 하루 평균 10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탁월한 경제적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철도는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입니다. 많은 승객과 화물을 한꺼번에 빠르고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해결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빨라진 속도로 지역간 인구와 물자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국토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것도 철도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KTX 정차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지역간 균형 발전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노력, 한국철도공사가 먼저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속가능성

KTX는 대한민국과 한국철도공사의 경제적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대표 상품으로 승객들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개통 전보다 서울~부산 기준 36%나 단축시켰습니다. 2008년 기준 KTX는 지역간 철도 승객의 34% 이상을 수송했으며, 이는 한국철도공사가 지역간 여객사업으로 거두는 수익의 68%에 해당합니다. KTX 운행이 대폭 확대되는 2010년 이후에는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철도는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높은 에너지 효율을 자랑합니다. 승용차로 1명을 수송할 에너지면, 철도는 16명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철도는 또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적 운송수단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철도 여객은 도로교통 대비 1/2.5, 철도 화물은 1/12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 경제, 교육 그리고 문화적 기회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KTX 운행을 통해 지역사회에 성장과 투자의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는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훨씬 효과적이죠.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고 환경오염을 줄여 주니까요. 이 같은 철도 이용의 효용성에 속도를 더한 것이 KTX입니다. KTX는 전국 5개 주요 도시 간의 운행시간을 3시간 이내로 단축시켜줘 생활의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사원
한국철도공사 비서팀

"우리가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는 친환경 경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승객을 보호하고 수많은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는 기업으로서 당연히 실천해야 할 책임이니까요. 사내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전사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UN글로벌콤팩트 가입 같은 국제적인 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누구보다 먼저 달려 나가는 기업, 바로 우리 한국철도공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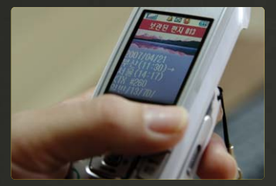
김진화 승무원
코레일투어서비스

“
2005년 한국철도공사의 출범은 고객 서비스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에요. 2005년 수송 분야에서 64점이던 국가고객만족지수(NCSI)가, 2007년에는 75점으로 올라 국내 운송업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철도가 가장 편리하고 편안한 여행 수단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백상훈 승무원
코레일투어서비스

고객의 미소가 우리의 행복입니다

고객의 수는 비즈니스의 성과를 측정하는 바로미터입니다. 2004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KTX는 단 한 건의 큰 사고 없이 1억 7,0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수준 높은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등 고품격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스위스의 세계적 품질인증기관인 SGS가 KTX와 20개 정차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수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국내 기업 최초로 SGS 품질인증마크인 QualiCert™를 획득했습니다.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한국철도공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승차권 구매의 편리성
2005년 홈티켓과 e-티켓, 2006년 'SMS 티켓'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2009년 휴대폰으로 예약 ·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승차권'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철도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승차권 우편 배송 등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 ·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여행의 편리성
주요 역의 렌터카 서비스와 서울역 · 용산역에서 인천공항까지 리무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철도여행
점차 늘어나는 레저 활동에 대한 승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와인열차, MTB열차(산악자전거 열차), 스키열차, 바다열차 등 다양한 테마관광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리는 영화열차(KTX 시네마)와 관광전용 레이디버드열차(Lady Bird Train), 호텔식 관광전용열차 레일크루즈 '해랑'을 운영하는 등 철도여행의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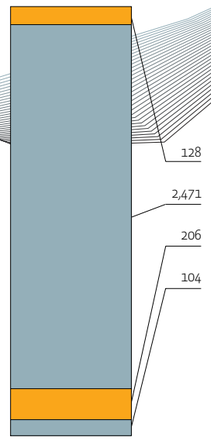
About Korea Railroad Corporation

Keeping Korea Connected

세상의 모든 만남에 함께합니다

사람과 사람, 경제와 경제, 문화와 문화를 만나게 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의 24시간에는 쉼표가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펼치고 있는 지역간 여객사업, 광역철도사업, 물류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대사업을 통해 세상은 더욱 넓어지고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출퇴근이든, 지방 출장이든, 또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상품을 운송하는 일이든, 세상의 모든 만남에 글로벌 종합운송기업 한국철도공사가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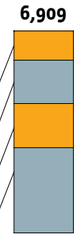
주요 사업 ● 여객 · 화물의 철도운송 및 부대운송 ● 철도 차량 유지보수 및 임대 ● 철도 기반시설 유지보수 ● 역세권 자산 개발 ● 관광 및 해외사업 등



일 평균 여객 · 화물 수송량

단위 : 천 명 / 천 톤

화물	128	1,053
광역철도	2,471	1,631
일반여객	206	1,360
KTX	104	2,8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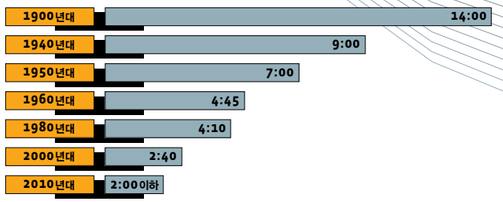


일 평균 여객 · 화물 수입

단위 : 백만 원

서울~부산 소요시간 변화

단위 : 시간 / 분



사업 분야별 수입 비율

단위 : %

	2006	2007	2008
운송 서비스	73	75	77
운송 서비스 이외 사업	27	25	23

수송 인원

단위 : 백만 명

	2006	2007	2008
KTX	36	37	38
일반여객	78	73	75
광역철도	855	879	902
계	969	989	1,015

운송서비스 수입 비율

단위 : %

	2006	2007	2008
KTX	41	42	41
일반여객	24	21	20
광역철도	21	22	24
화물	14	15	15

지역간 여객사업

전국 어디든 한국철도로 이어집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역간 여객서비스를 통해 2008년 1억 1,310만 명을 수송했습니다. 2004년 도입된 KTX는 서울과 부산을 2시간 40분대에 주파하며 전국을 한나절 생활권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2009년 차세대 KTX-II의 도입과 2010년 경부선 2단계 고속철도가 완성되면 한국철도는 대한민국을 더 빠르고 더 가깝게 연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것은 단지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철도의 오랜 역사와 함께해 왔던 새마을 · 무궁화 · 통근열차가 대도시에서부터 소도시에 이르기까지 전국 구석구석을 달림으로써 대한민국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테마관광열차를 개발하여 새로운 여행문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한국철도로 이어집니다.

테마관광열차

지역간 여객사업 외에 지역축제 연계 테마관광열차, 계절별 테마관광열차, 관광과 열차 내 숙식 · 문화 이벤트를 겸할 수 있는 관광전용열차 등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행객 전용 철도패스(KR-PASS)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3~10일) KTX와 일반철도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여행객 전용 철도패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 일 공동승차권

한 장의 승차권으로 한 · 일 양국의 철도와 선박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한 · 일 공동승차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산~후쿠오카를 페리로 왕복하는 KTX 여행객들은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TX, 일반여객 일간 통계

	KTX	일반여객
운행횟수	주간/주말 140/181	주간/주말 455/460
수송인원	10만 4,200명	20만 5,700명
수입	28억 6,500만 원	13억 6,0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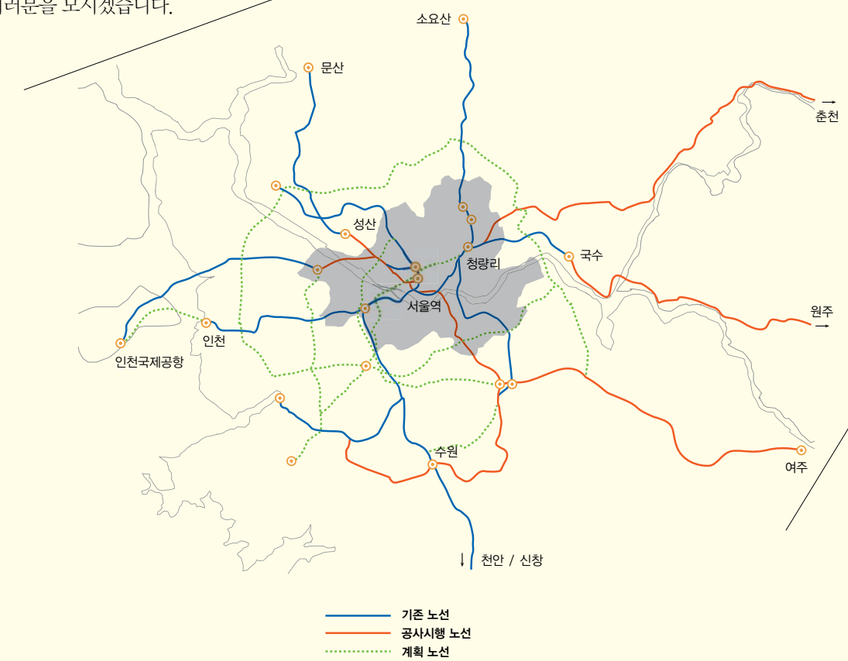
KTX, KTX-II 차량 비교

	KTX	KTX-II
운행속도	300 km/h	300 km/h
길이	20량, 388m	10량, 201m
총 좌석수	935	363
특실 좌석수	125	30
일반실 좌석수	810	333

광역철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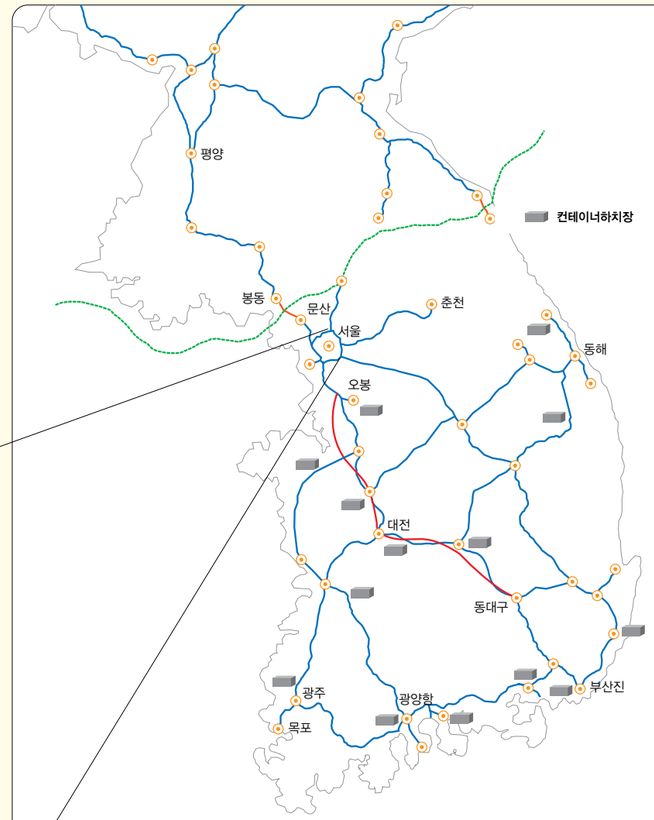
수도권 곳곳을 빠르게 이어줍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약 9억 명이 한국철도공사의 전동차를 이용했습니다. 10개 노선 370km에 달하는 한국철도공사의 광역전철 노선은 인천 · 천안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을 연결하여 시민의 발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 경기도 등 지자체와 공동으로 통합요금체계를 구축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환승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5년까지 353km의 신규 영업노선을 확장하고, 저소음 웰빙 전동차를 도입하여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일간 통계

운행횟수	주간/주말 2,079/1,643
수송인원	247만 명
수입	16억 3,1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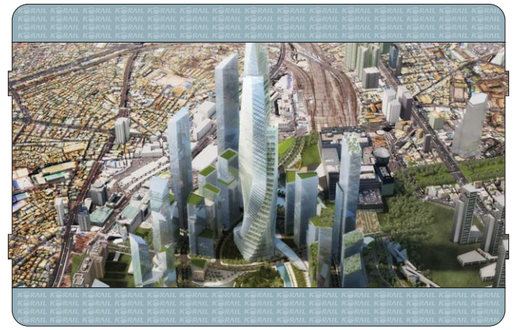
일간 통계

운행횟수	주간 327
화물 운송량	13만 톤
수입	10억 5,300만 원

물류사업

물류허브의 꿈을 실어 나릅니다

동북아 물류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에서 철도는 물류 인프라의 근간이며 경제의 동맥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실시간 물류정보 조회와 운송 신청이 가능한 첨단 철도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고객맞춤형 열차단위상품인 '블록 트레인(Block Train)'을 확대 도입하여 운행시간을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8년 한국철도공사는 191개 화물 취급역에서 4,700만 톤의 화물을 운송하였습니다. 향후 대륙으로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 가 현실화되면 한국철도공사의 물류사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부 대 사 업

수익사업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핵심사업인 여객 · 화물 운송사업 외에 자산개발사업, 벤처사업, 레저 · 문화사업, IT서비스 등 철도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관련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철도공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고객에게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여 종합생활서비스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산개발사업

철도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도시발전 및 지역주민 생활의 질 향상과 철도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철도역세권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자산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세권 개발사업은 용산역 일대에 국제업무와 상업 · 문화 · 주거시설 등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로서 국내에서 가장 높은 665m 빌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복합역사개발, 철도연변 부지개발, 민자역사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처사업

철도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폐철도차량을 활용한 인공어초사업, KTX 캐릭터 사업, 폐유 재생 · 판매사업, 테마열차 펜션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레저 · 문화사업

뛰어난 경관을 지닌 간이역과 폐선로를 관광지로 개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IT서비스

한국철도공사의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계열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규사업 발굴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레일로지스(주)
www.koraillogis.com
철로를 이용한 수출입 컨테이너의 일괄운송체계를 구축하여 물류를 안전하고 빠르게 수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화물과 육상화물 등을 유치 · 수송하는 등 철도 종합물류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설립: 2003년 12월 | 2008년 매출: 674억 200만 원

코레일투어서비스(주)
www.korailtours.com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테마여행 · 체험학습 · 지역축제 등의 기차여행상품을 개발 · 판매하는 관광여행사업을 비롯하여 정선 레일바이크 · 풍경열차 · 바다열차 · 곡성 기차마을을 운영하는 테마파크사업, KTX · 새마을호의 승무서비스사업, 열차 내 물품 판매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설립: 2004년 8월 | 2008년 매출: 474억 9,000만 원

코레일네트웍스(주)
www.korailnetworks.com
스마트카드 분야의 핵심역량과 코레일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멤버십사업, 제휴마케팅사업, 포인트사업, VAN사업, 교통카드사업, 전자티켓사업, 승차권발매사업, 고객센터사업 및 역세권 및 복합역사개발사업,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사업, 역무위탁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철도경영을 개선하고 편의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설립: 2004년 9월 | 2008년 매출: 516억 100만 원

코레일유통(주)
www.korailretail.com
'홍익회' 로 출발한 철도 기반 전문유통기업으로서 스토리웨이 편의점으로 대표되는 점포사업, 지역 특산품과 명품 등을 판매하는 열차 내 쇼핑몰 '트레인숍'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KTX를 제외한 열차 내 판매사업, 역무위탁사업, 하역사업, 광고, 자판기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립: 2004년 12월 | 2008년 매출: 2,258억 5,300만 원

코레일테크(주)
www.korailtech.kr
건널목 안전관리, 전기, 철도차량, 구조물 안전진단 등의 공사 및 유지보수 · 정비 · 점검을 통해 열차안전운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품질 저비용의 유지보수방법 및 각 사업분야 실용화 기술개발 등 철도기술분야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설립: 2004년 12월 | 2008년 매출: 309억 4,400만 원

계 열 사

5개의 바퀴로 더 큰 시너지를 만듭니다

한국철도공사의 5개 계열사는 각 사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세계 수준의 여객 · 화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사마다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수익기반을 강화한 결과, 2008년 모든 계열사가 전년 대비 평균 17%의 매출 증대를 기록했습니다.

KORAIL

Bringing More to Life

Good Times

Shared Dreams

Precious Memories

Tender Embra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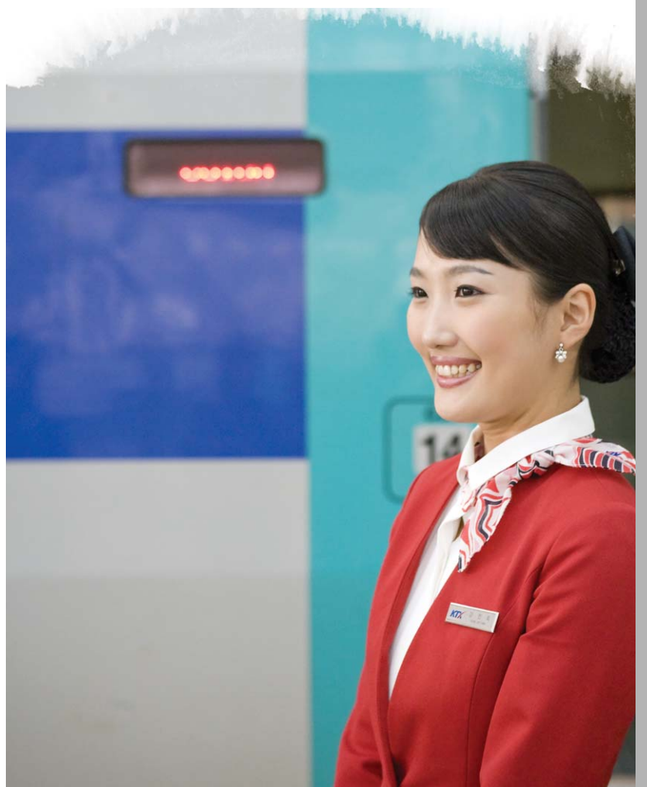
Pleasant Welcomes

Precious Memories

KTX를 타고 딸아이와 함께 고향집을 찾아갑니다.
열차를 타면 열차보다도 마음이 더 먼저 목적지에 갑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머릿속은
젊은 시절의 숱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춘천과
동해바다를 헤매고 있군요. 그리고 마침내 다다른 곳은
그 옛날 완행열차를 타고 떠나온 고향역…….
멀리 열차 소리만 들려도 서울 사는 자식들을 떠올렸을 아버지,
손녀딸이 온다는 소식에 필시 1시간 전부터
역에 나와 계셨을 테지요.
제 할아버지가 목을 빼고 저를 기다리던 이 철도 여행이
먼 훗날 딸아이도 가끔은 꺼내보고 싶은
그리운 장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Shared Dreams

철도 승무원은 모든 이의 꿈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떠나는 철도 여행에 들떠 있는 아이를 만나면 함께 설레고,
피곤에 지쳐 곤히 잠든 이를 마주치면 부디 단꿈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는 일은 때로 거칠고 힘이 들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앞으로 한걸음 내딛는 것임을 철도로 인해 배웁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철로처럼 쭉 뻗은 미래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Good Times

열차를 타고 도착한 여행지보다
열차를 타고 가는 동안의 시간이 더
기억에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탄 KTX 1호차가
시네마열차인 줄도 몰랐습니다.
보고 싶었던 영화를 달리는 열차 안에서
만났을 때의 기쁨은 컸습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의 기쁨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던 이유를 친구는 알까요?
가는 동안이 더 행복한 열차,
친구와 함께하는 와인열차, 바다열차는
더 근사하겠지요?

레일 위로 유쾌한 즐거움이 흐릅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아름다운 풍경은 색색의
웃음으로 영글고, 특별한 문화 경험과 휴식은
안락함으로 기억됩니다.
대한민국을 특별하게 만나게 하는 호텔식
관광열차 레일크루즈 '해랑'.
해랑이 가는 길은 행복입니다.

Tender Embraces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은지 아내가 묻습니다.
굳이 말을 안 해도 넥타이핀과 꽃다발 정도는 사올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모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내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주말부부로 보낸 지 2년.
오늘처럼 평일에 맞이하는 생일은 그래서 쓸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아내가 왔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경 영 혁 신

우리의 성장엔진은 변화를 향한 노력입니다

운송산업은 경쟁이 치열한 분야입니다. 더 용이한 접근, 많은 운행횟수, 높은 신뢰성 덕분에 철도가 비행기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지만, 지난 30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난 보급률에 힘입어 사람들은 언제든 자신의 자동차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량의 증가가 심각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으로 연결되면서, 한국철도는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철도는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교통 정체 없이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차세대 교통수단의 면모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의 혁신은 한 단계 앞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종합운송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약속

-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겠습니다
- 고객과의 약속시간을 지키겠습니다
- 고객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고객에게 잘못 제공된 서비스는 바로 고치고 보상하겠습니다
- 고객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개선하겠습니다

서비스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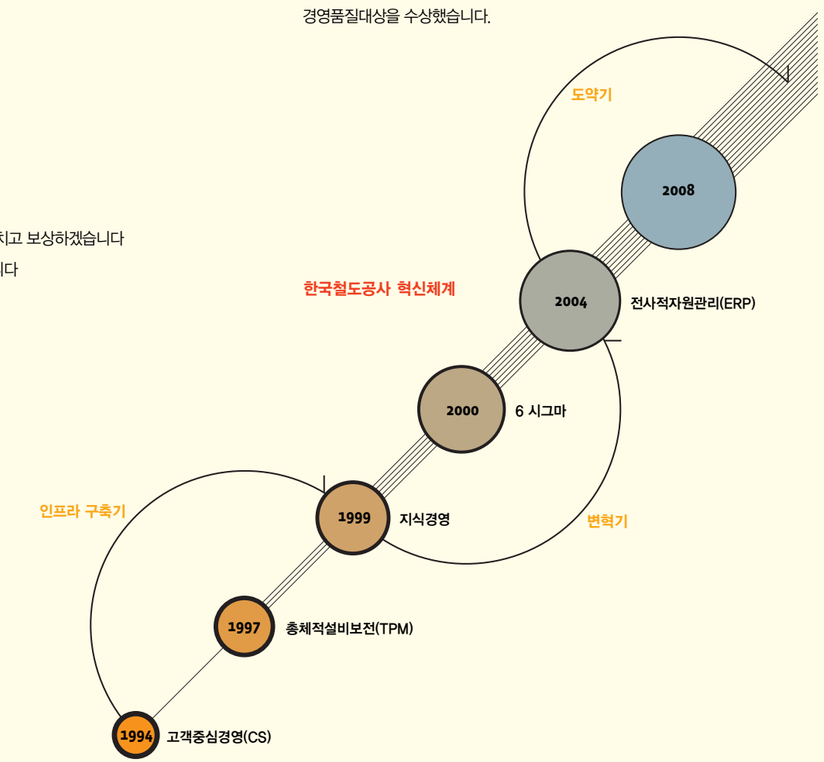
더욱 편안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무인자동발권기, 스마트카드, SMS 티켓, 모바일승차권 등 온라인 발권서비스로 대기시간을 줄였으며, KTX의 정시율을 2009년 4월 현재 97.5%로 높였습니다. 다양한 코레일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특색있는 철도여행상품을 선보이는 등 새로운 여행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혁신

고객가치의 바로미터인 고객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기업 가치 또한 향상시켜 가고 있습니다. 2005년 64점이던 국가고객만족지수(NCSI)는 2007년 11점이 오른 75점을 기록, 국내 운송업계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07년에는 한국의 모든 기업 가운데 최초로 세계적 품질인증기관인 SGS의 서비스품질인증마크 QualiCert™를 획득하였습니다.

경영 혁신

최근 몇 년간 한국철도공사가 일군 눈부신 성과는 경영 혁신을 위해 오랫동안 매진한 결과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고객중심경영(CS), 총체적설비보전(TPM), 지식경영, 6시그마, 전사적자원관리(ERP) 등을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도입 · 적용했습니다. 또한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의 대표 경영컨설팅그룹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7년에 이어 2008년 다섯 번째로 경영품질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환경경영

철도가 가로지르는 풍경은 언제나 아름다운 대자연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모두 함께 누려야 할 환경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2008년 한국철도공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인 'ECO-RAIL 2015'를 선포하고, 추진과제로 친환경 인프라(Eco-Design), 친환경 운영(Eco-Operation), 친환경 정책투자(Eco-Investment)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철도 노선의 전철화 구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했으며, 2008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산하기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준에 입각한 첫 지속경영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사회공헌

이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많은 수의 지역사회와 사람들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3,392km에 이르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망은 전국 방방곡곡 수많은 사람들의 이웃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한국철도공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런 생활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경제적 후원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06년 4월 코레일사회봉사단을 설립하여 소외된 이웃들의 필요에 맞는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전 직원의 60% 달하는 1만 9,000여 명으로 구성된 코레일사회봉사단은 전국의 442개 지역에서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러브 펀드, 장애인 방문, 특별기차 여행, 겨울철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 제공, 농번기 일손 보조, 주택수리 등 활동 분야를 다양화 · 체계화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 해비타트 등 사회봉사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 & 기술개발

사람이 비타민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가장 큰 자산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개인이 맡은 직무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은 한국철도공사의 평생고객을 형성하는 기반이며, 먼 미래까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05년 한국철도공사는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연구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솔루션과 서비스를 세계시장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사업, 한국형 틸팅열차 신뢰성 평가와 운용개발사업 등 첨단철도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철도공사는 첨단철도기술 개발에 더욱 주력하고, 효과적인 대륙철도 운영방안 연구 및 해결 등을 통해 미래 철도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국제활동

한국철도의 이름이 세계를 누빕니다

110년의 역사 속에서 축적한 경험과 2004년 고속철도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구축한 기술 경쟁력으로, 한국철도가 세계 철도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도쿄 · 베이징 · 파리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세계 여러 철도회사, 협력회사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국제적 유대관계는 2004년 KTX의 성공적 도입 이후 더욱 증진되고 있습니다. 2006년 국제철도연맹(UIC)과 협력하여 제1차 아시아철도운영자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2007년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새롭게 출범한 UIC 아시아지역총회 초대 의장에 선출되었습니다. 2008년 5월에는 세계철도학술대회(WCRR)와 UIC 총회, UIC 아시아지역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성공리에 개최한바 있으며, 같은 시기에 국제철도연수센터(IRaTCA)를 개소하여 아시아 철도발전과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또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도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 중인 말레이시아 전기동차 유지보수 컨설팅 사업을 시작으로, 리비아와 철도직원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미국 · 브라질 · UAE · 나이지리아 등 여러 국가들과 함께 철도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자문, 교육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 KOREA WCRR SEOUL Towards a Global Railway

iRaTCA International Railway Training Center for UIC Asia

Connecting People

여기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위에 고향을 찾아가는 가족이 있고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러 가는

비즈니스맨이 있고

또 젊은 날의 친구를 만나러 가는

오래된 청춘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행복한 시간들,

레일 위에 별처럼 돋아납니다.

레일을 따라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손을 잡습니다.

Connecting to Life

여기 광장이 있습니다.

그 너른 마당에서 아랫마을과

윗마을 사람들이 만나고

즐거운 이야기 꽃이 수다스럽게 피고

새로운 풍습과 문화들이 둥지를 틉니다.

서로 다른 삶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풍경들,

들꽃처럼 한창입니다.

레일이 가는 곳마다 이곳의 삶과

그곳의 삶이 어깨동무를 합니다.

Connecting to
Tomorrow

여기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긴 시간을 흘러온 강물이 새로운 물결과
뒤섞여 하나가 되듯
1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온 한국철도의
역사는 끊임없는 혁신으로 미래와 이어집니다.
지난 세월 속에서 다져진 경험과 노하우는
한국철도공사의 저력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시간은 언제나
미래로 흐릅니다.

새로운 철도 100년을 향한
한국철도공사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시간은 언제나 미래로 흐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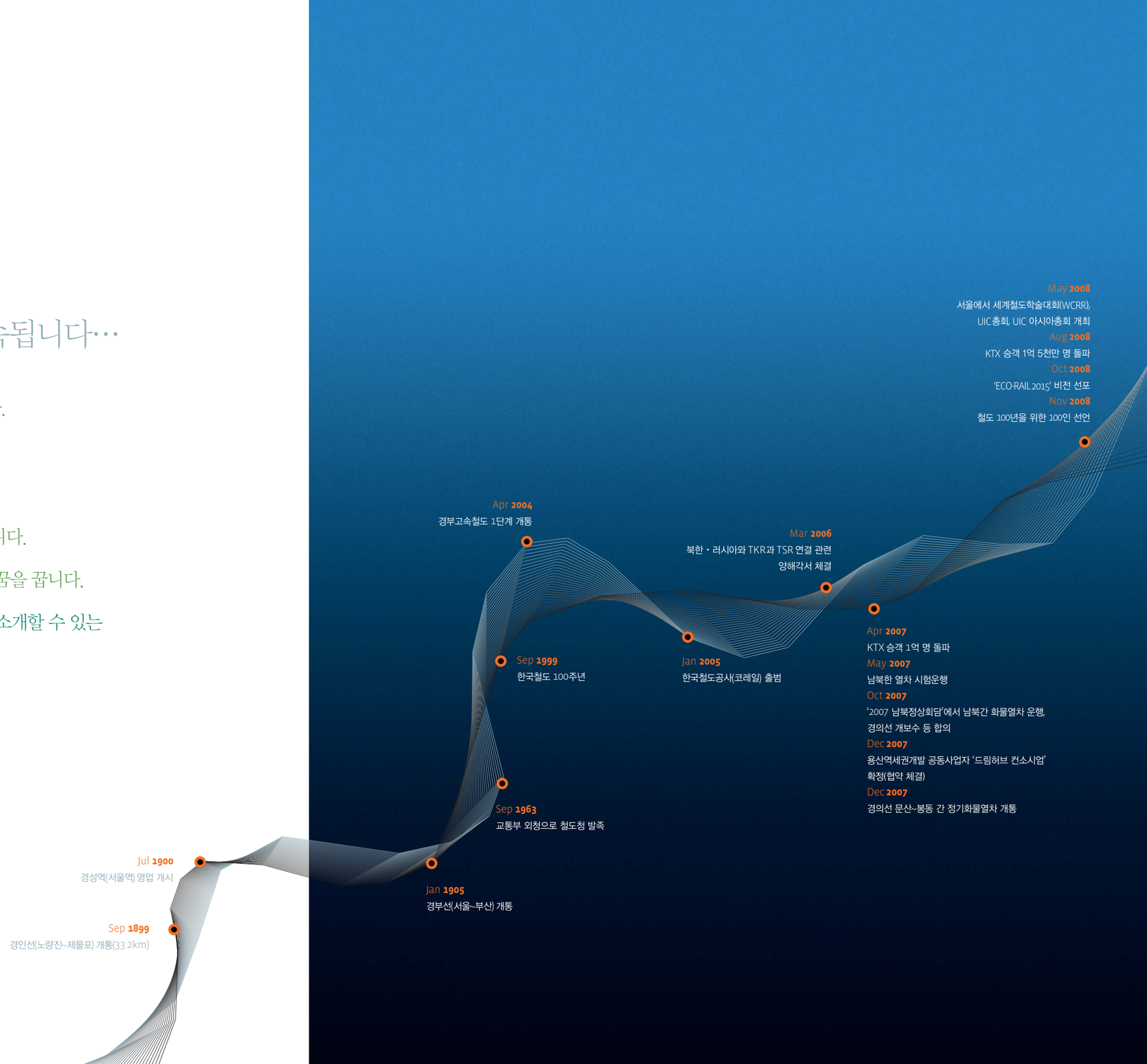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가는 대륙횡단철도도,

KTX 이용고객 2억 명을 목전에 둔 성과도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새로운 철도 100년을 준비하며 우리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온 국민이 친근하게 여기고 세계에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세계 1등 국민철도' 를 향한 꿈,

그 꿈의 동반자는 바로 당신입니다.